

정령Letter

법무부 청령알림 e

WWW.MOJ.GO.KR

MINISTRY OF JUSTICE

WWW.MOJ.GO.KR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



청령은 IN
부패는 OUT

✓ Issue 1

여는 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의 초석, 청령
(법무부장관 정성호)

✓ Issue 2

청령 포커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개선 인터뷰
(출입국정책담당장 김정도)

✓ Issue 3

청령 탐방

광복 80주년 그리고 청령
굿모닝 팝스? 굿모닝 청령!
청령할인쿠폰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의 초석, **청렴**



법무부장관
정 성 호

법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새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 가족 여러분과 첫걸음을 내디딜 때, 법무행정의 대원칙은 ‘국민의 인권보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인권보호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과제들을 수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결코 쉽지 않지만, 법무부가 부여받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모든 사명의 바탕에는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다름 아닌 청렴입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국민 앞에서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작은 편익이나 관행이라도 국민의 눈에는 불신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렴을 지켜낼 때, 국민은 법무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고, 이는 곧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으로 돌아옵니다.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업무에서 지키는 작은 원칙에서 비롯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보관금품 접수, 변호인 접견 등 법무 가족 여러분들이 매일 수행하는 업무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곧 청렴입니다.

저는 장관으로서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청렴이 법무부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청렴이야말로 인권 존중과 혁신 법무행정의 초석임을 늘 기억하며, 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5. 10.
법무부장관 **정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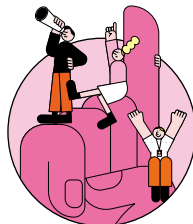
CONTENTS



청렴 소식



공모전 이야기



청렴 포커스



청렴 탐방

청렴 소식

2025년 법무부 청렴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25년 5월 22~23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2025년 법무부 청렴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청렴워크숍에는 제5기 청렴멤버스, 법무부 국민기자단, 감사담당관실 등 총 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강의 프로그램으로는 박기경 청렴전문강사의 ‘K-POP으로 배우는 청렴윤리’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했던 신민섭 전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전문상담센터팀장의 청렴 소양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참여자들은 법무부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분임토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분임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승인, ▲보관품품 접수,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 ▲갑질 예방, ▲불합리한 관행 개선 중 1가지 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청렴워크숍에는 법무부 국민기자단 2명도 함께하여 청렴멤버스의 활동상을 취재하고 블로그에 업로드하는 등 청렴 문화 확산 활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구성원들이 청렴을 논의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청렴릴레이 교육 실시



법무부는 2025년 6월 기관별 소속기관장·청렴 업무 담당자 등 총 263명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1단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수도권, 호남권, 경상권, 충청권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주요 반부패 법령을 다루었습니다. 연 1회,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 의무화에 따라 법무부 전 직원 대상 대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청렴릴레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릴레이 교육은 1단계 교육 이수자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내용을 전파하며 2단계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관별 릴레이 교육 실적은 올해 청렴마일리지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교육이 법무부 전 직원의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사례 발생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법무부 부패방지 교육 실시



2025년 8월 26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지하대강당에서 법무부 고위공직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법무부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인문학·과학 등 대중적 주제와 청렴을 결합한 명사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궁금한 뇌연구소’ 장동선 대표를 초청하여 뇌과학의 관점에서 본 청렴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장동선 대표는 tvN 방영 ‘알쓸신잡2’, ‘세바시’ 등



방송 출연 및 유튜브 활동으로 잘 알려진 뇌과학자입니다. 이어서는 김주원 청렴전문강사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부패방지 교육에서 벗어나 신선한 콘텐츠를 결합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법무부-산하 공공기관 등 청렴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4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법무부-산하 공공기관 등 청렴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법무부 감사담당관을 비롯해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기타 공직유관단체(교정공제회, 이민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업무 담당자 등 총 1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담회는 법무부 감사담당관 및 청렴시민감사관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해 온 반부패·청렴 정책과 기관별 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각 기관의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이 추진한 반부패·청렴 정책 우수사례 중 정부법무공단의 자체감사기구(감사실) 운영 사례가 청렴 문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공공기관을 대표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정책 성과를 함께 점검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상호지원을 통해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꾸준히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작을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을 2025년 4월 1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3년을 맞아, '이해충돌방지법 주요내용 및 사례 소개'를 주제로 숏폼(short-form) 형식의 영상 콘텐츠를 공모하였습니다.

총 32개(개인 16개, 팀 16개)이 접수되었으며, 내·외부 위원이 심사에 참여하여 창의성과 작품성을 두루 갖춘 작품들로 법무부장관상 수상작 4건(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상 시상식은 지난 8월 8일 장관소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법무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던 이번 공모전의 주인공분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정분부 사회복귀과 교감 김은경

소확행? 소확행!

최우수상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좋은 영상들이 많았을텐데 새로운 시도에 점수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법무부 청렴알림e 독자들에게 간단한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 공람되었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집'을 흥미있게 정독했습니다. 흔히 이해충돌방지법을 특정 보직이나 퇴직자를 관련 사항으로 생각하지만,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의 경우는 누구나 부지불식 간에 위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한번 더 조심하자는 취지로 실제 있었던 위반 사례들을 담아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 노래는 가사를 제가 직접 쓰고, SUNO.ai로 곡을 만든 다음, audacity 프로그램으로 약간의 편곡을 했습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chatGPT, TENSOR, 미드저니를 사용해서 기본 이미지를 만들었고, 포토샵으로 최대한 일관성있게 다듬었습니다. ai로 제작한 영상이 아닌 ai 요소들을 활용한 영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제작 당시(4월)만 해도 영상 편집을 잘 하지 못해, 아예 B급 감성으로 컨셉을 잡고 파워포인트를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나름 재미있는 화면이 나와서 다행이지만, 지금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공모전 이후 영상 편집은 물론,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오디오, 영상 제작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법무 가족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과 관련된 규정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공직자를 보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겠죠. 한번 더 생각하고 조심해서 우리 법무 가족들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숏츠 영상 법TV에서 많이 봐주시고, 신나는 노래도 따라 불러 주세요 ^^)



공모전 이야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관리서기
남홍찬·조아혜
전문임기제 다급
정혜진

[단독]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년째, 모 공공기관에서 대거 적발사례 나와...

우수상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렴’은 요즘 공직사회에서 가장 이슈화되는 것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솜품 영상을 통해서 청렴의 주제와 가치가 조금이나마 공직자분들과 대중분들에게 재미있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훌륭한 작품도 많은데 그 중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법무부 청렴알림e 독자들에게 간단한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공직 생활 중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재구성하여 재미있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수상한 후에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동료 직원분들은 영상을 보고 되게 재밌어했고, 또 우수상을 수상했다며 자랑스러워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영상에 직접 출연해서 몹쓸 연기를 펼치는게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하하..

공모전 수상 상금 전액을 모두 기부하셨는데, 기부하게 된 동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청렴 콘텐츠 공모전 팀을 결성할 당시부터, 저희 팀원들은 ‘1등 하면 기부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좋은 일을 또 다른 좋은 일로 연결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또 수상할 수밖에 없게끔 영상을 잘 만들고자 하는 다짐도 있었구요. 비록 최우수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상이란 영예가 있었고 처음 계획했던 것처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처를 찾는 도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소식을 들었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경제
보도기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법무부 청렴콘텐츠 공모전」우수상 수상... 상금 전액 다문화 가정 기부(2025. 8. 26.)



제주소년원
보호주사보 민희진
보호서기보
임은영·방혜현

긴급취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현장(feat. 너는 솔로)

장려상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팀원들 사이에서도 유쾌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만큼 모두 즐겁게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수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다방면의 능력 만렙 ‘민희진 선생님’과 훌륭한 메인 연기자 ‘방혜현 선생님’의 활약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떻게 재미있게 접근하고 동시에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할지 수많은 고민을 한 만큼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부 청렴알림e 독자들에게 간단한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너는 솔로’라는 가상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의 신고로 뉴스 기자가 현장을 잠입하여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부조리한 부패 현장을 취재하여 긴급 보도한다는 형식을 공직사회에서의 유사한 상황으로 대입시켰습니다. 이로써,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어려울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입니다.

시사 및 예능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셨나요?

법률 및 법령 분야는 특히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공직자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다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팀원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콘셉트가 나왔고 최종적으로 ‘나는 솔로’ 프로그램과 ‘뉴스’ 프로그램을 합치면 유쾌한 작품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이번 공모전 참여 자체가 다소 생소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법을 계속 읽고 분석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팀 JEJU 결성 후 시나리오 작성, 촬영 및 편집 등 일련의 과정이 팀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던 만큼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부이사관 **송소영**

출입국관리주사
이상훈·유시열·박미선

출입국관리주사보
이동원·오지민·신유나

출입국관리서기
배세경·선영탁·문서영

공업서기보 **김우람**

사회복무요원 **류창환**



한번 더 생각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장려상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렴의 가치를 담은 콘텐츠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작은 아이디어였지만 의미 있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청렴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법무부 청렴알림e 독자들에게 간단한 작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 쉽게 위반할 수 있는 3가지 유형에 대해 콩트 형식을 빌려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의 몰락”, 두 번째는 “그 봉투의 끝”, 마지막으로 “사약이 되어버린 술잔”이라는 부제를 달고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도 커다란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주제로 다루었고, “한 번 더 생각하면(法) 지킬 수 있습니다”라는 클로징 멘트를 통해 청렴을 강조하며 영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영상인데요, 많은 인원이 참가한 만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여러 에피소드가 있지만, 특히 “사약이 되어버린 술잔”이라는 부제의 영상을 촬영할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청 내 구내식당을 빌려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행정사)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찍었는데, 술집 분위기를 내기 위해 조리사분들께서 직접 안주를 만들어 주시고 저희는 빈 술병을 구하는 등 모두가 웃으며 촬영했던 순간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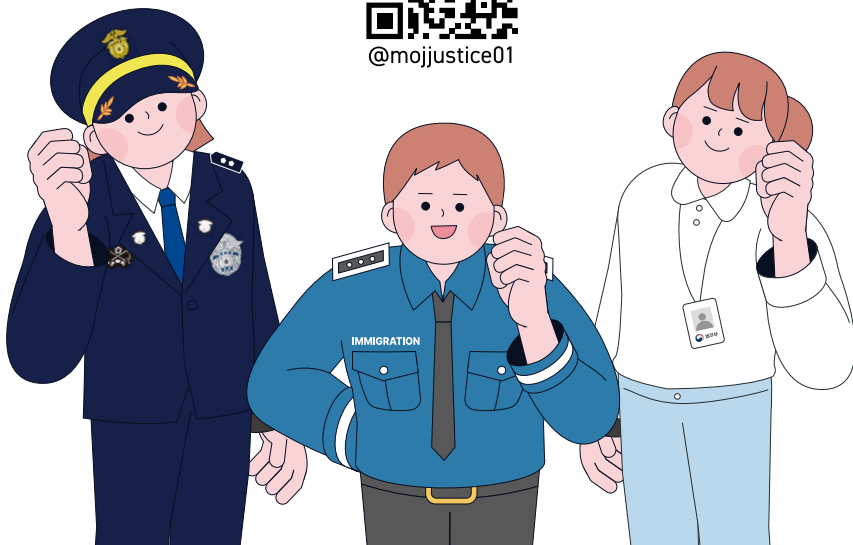
숏폼이라는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었지만, 직원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함께 촬영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정책과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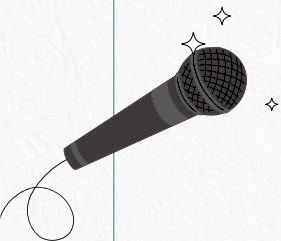
2025년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들은
법무부 유튜브 채널  **법무부T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ojjustice0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개선 인터뷰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0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국인에게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미리 국내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해당 외국인이 재외공관에서 더 간편하고 빠르게 사증을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D-4(어학연수), E-7(전문인력),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들이 주요 발급 대상입니다.

0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발급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급 대상, 신청서류, 접수절차, 심사 결과의 통지 등입니다.

이를 더 쉽게 안내하기 위해 '하이코리아 누리집'(hikorea.go.kr)과 '비자포털 누리집'(visa.go.kr)에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를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지방 출입국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연간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외국인력 도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 9만 5천에서,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시기를 지나 2024년에는 약 20만 건으로 5년 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농어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외국인 어학연수생 등 유학생 유입, 그리고 전 세계적인 K-문화 확산 등의 영향이 결합한 결과로 보입니다.

04

2024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청렴도 점수가 다소 하락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업무'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일부 민원인이 "부패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심사가 지연되는 동안 민원인이 겪은 불편이 '부패 경험'으로 인식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5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민원인과 공무원 접촉을 최소화하고, 청탁·부패 유발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접근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제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에서도 바로 사증발급인정서 온라인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어, 편리하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민원인의 현재 사증심사 단계와 예상 처리 기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통일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사증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증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이들을 심사가 적체되는 기관에 적절히 배치하여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06

마지막으로 향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도 운영 방향성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앞으로도 업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꾸준히 점검하고, 민원인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AI 기반의 사증심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신청서류를 효율적으로 접수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더 나은 출입국·외국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80주년 그리고 청렴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몇 해 전,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발자취를 찾아가본 적이 있다. 중국 다렌 시내에서도 약 한 시간 떨어져 있는 뤼순 감옥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았지만, ‘역사 교육은 지속적인 관심 속에서 기억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후세들에게 강력한 신념과 정당한 행위를 갖도록 한다.’는 뤼순 감옥에 적혀 있는 글귀가 순탄치 않은 길을 거쳐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찾아온 의미를 내게 알려주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들은 후세들에게 어떠한 신념을 남겼을까. 안중근 의사는 감옥에서 많은 글씨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10년 2월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남긴 두 글자 ‘녹죽’(綠竹)이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인 2025년에 처음으로 국내에 공개되었다. 안 의사의 녹죽은 1910년 사형을 앞두고 중국 뤼순 감옥에서 자신의 신념을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에 빗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녹죽은 푸른 대나무라는 의미이지만 단순한 푸른 대나무의 의미를 넘어서 굳건한 독립정신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 안 의사는 유묵 ‘녹죽’을 통해 독립운동가의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대나무의 곧음과 대나무의 속이 비어 있는 것과 같은 청렴함을 후세들에게 강조하고자 했을 것이다.

법무부 청렴멤버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혜진



그렇다면 청렴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실패, 질병, 불운과 같은 부정적 상황을 곧장 불행으로 단정하고, 그것을 지워버리려 애쓴다. 그러나 통념을 깨고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새롭게 정의한 올리버 버크먼의 저서 ‘행복 강박’에 따르면, 버크먼은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한 길이라 말한다.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삶은 없으며, 중요한 것은 그 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태도다. 공직자의 청렴 또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많은 부정과 비리는 삶에서 마주한 ‘나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어려움을 견디기보다 사적 이익이나 검은돈으로 보상받으려는 순간 청렴은 흔들린다. 삶을 좋은 것들로만 채우려는 집착 속에서는 결코 청렴을 지킬 수 없다. 청렴은 부족함과 불편함을 감내하면서도 바른길을 선택하는 용기 속에서 비로소 지켜진다. 삶의 그림자는 누구에게나 드리워져 있으며, 그것을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어둠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사적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삶에 남겨진 무게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인간적인 청렴의 자세일 것이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가 남긴 ‘녹죽’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깨닫고, 청렴의 자세를 다시금 다짐하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공직자들이 만들어가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는 또 하나의 역사로 남겨질 것이다.



청렴 탐방

굿모닝 팝스? 굿모닝 청렴!

FREE

Netflix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법무부 청렴멤버스
안양소년원 김민주



넷플릭스(Netflix)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가 공개 5주 만에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수록곡 'Golden'이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에 올라 화제다. 케이팝(K-pop)을 매개로 악귀로부터 세상을 지키는 혼문(Honmoon)을 완성하는 내용의 이 애니메이션은 진정한 자신을 찾고 받아들이는 메시지도 포함하여 세대의 구분 없는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중점을 두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또 다른 수록곡 'Free'의 가사를 살펴보았다. Let's build 청렴 혼문 TOGETHER!

01

신고 및 제출의 의무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

I tried to hide but something broke.

나는 숨기려 했지만 무언가가 부서졌어.

주인공 '루미'는 선대 헌터와 악귀의 혼혈로 자신의 몸에 점차 빛나는 문양(악귀의 증거)을 숨길 수 없게 된다. 비밀은 영원하지 않다. 사적 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역시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기 마련인 만큼 숨김없이 즉시 신고하고 회피하는 것이 정답이다. **망설임은 14일 이내 신고를 늦출 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후략)
-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후략)

But here with you, I can finally breathe.
하지만 여기 너와 함께라면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어.

루미에게는 자신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진우'가 있다.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민간부문 업무내역을 소속기관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및 제출 의무 이행을 통하여 숨통 트고(breathe) 업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 could be free!**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후략)
-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후략)



Let the past be the past 'til it's weightless
과거는 과거로 두자, 그것이 무게를 잃을 때까지.

과거에 매여있기보다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므로써 더욱 강한 헌터가 되어 새로운 혼문을 완성한 루미! 어제의 동료, 고마웠던 상사와의 과거가 좋은 추억으로 남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 공직에서의 자신이 보다堂堂하게 빛나도록 **퇴직 후 2년간의 접촉을 신중히 하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
- ※ (참고)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예외의 경우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등
 - 직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직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 타 기관 주관 공식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제한 및 금지 행위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We can't fix it, if we never face it.

직면하지 않으면, 바로잡을 수 없다.

부패는 단순히 숨기거나 회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청렴은 부패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직면(face)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왜냐하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예방까지 모든 단계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해관계만 따지지 않고 스스로 부패를 경계한다면 더 청렴한 공직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
-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후략)
-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

**All the secrets that keep me in chains,
and all the damage that might make me dangerous.**

나를 사슬에 가두는 모든 비밀들, 그리고 나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모든 흠집

루미의 상황이 보여주었던 자신의 흠집(damage)이라 숨겼던 비밀(secrets)은 오해와 배신감을 만들었다. 루미가 동료에게 자신의 비밀을 제때 말했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영어권 속담에 ‘A stitch in time saves nine.’이라는 표현이 있다. **제때 한 땀의 바느질이 아홉 번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뜻이다. 공공기관의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제때(a stitch in time)!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잡아보면 어떨까. 청렴한 공직문화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후략)
-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정말 받으시겠습니까?

법무부 청렴멤버스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서기보 신우경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꺾어주는

청렴할인쿠폰

청렴은 결코 '할인'되거나 '거래'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